생보사, 설계사 스카우트전 '과열'

영업력 강화위해 업체간 서로 인력 빼가기

"1인당 1명 충원" 강요도…서비스 피해 우려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생명보험업계에 설계사 스카우트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 중소형 생보사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재무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변액보험과 펀드 등을 판매하기 위해 남성 설계사를 꾸준히 확충하면서 보험사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간 스카우트 경쟁이 과열되면서 설계사의 보험 관리가 허술해 지는 것은 물론 고객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28일 광주·전남지역 생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생보사들이 영업력 강화를 위해 신규 지점을 대폭 늘리면서 생보사간 설계사들의 이동이 잦아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05년 S사를 인수하면서 생보업계에 뛰어 든 M사의 경우 최근까지 광주 등지에 잇따라 지점을 개설하는 등 가장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M사는 이 과정에서 기존 생보사의 설계사들을 무작위로 빼가 업계에서 '공공의 적'으로 까지 불리고 있다. 현재 M사가 운영하는 광주지역 지점은 20개로 대부분 개설된지 1년이내다.

또 업계 '빅3'로 꼽히는 A사도 최근 사내 공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설계사 1명씩을 충원토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B사도 설계사 확대방침에 따라 스카우트전에 본격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들이 우수 설계사 스카우트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전문직이나 기업 근무 경력이 있으며 보험 영업을 전업으로 할 수 있는 남성 위주로 영업망을 구성해 보험 판매를 비롯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복안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영업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다른 보험사의 설계사를 끌어오는 스카우트전이 과열되면서 생보사간 마찰이 빚어질 수 있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소지도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기존 전담 설계사의 이직으로 자신의 보험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고, 스카우트된 설계사가 종전 보험사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이 옮긴 보험사와 새 계약을 맺도록 하는 '승환계약'이 발생할 경우 기존 보험 해지에 따른 환급금 감소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

실제로 정모(여·39·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3년전 외국계 보험사에 근무하는 설계사에게 부부 종신보험을 들었는데 최근 이 설계사가 국내 모 생보사로 옮긴 것을 알게 됐다"며 "이후로는 상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생보협회와 함께 스카우트 현황과 승환계약 실태 등을 조사한 뒤 관련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생보사 관계자는 "일부 생보사들이 변액보험과 펀드 등 종합적인 재무 컨설팅에 영업의 초점을 맞추면서 단기간에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남성 설계사 위주로 충원하고 있다"며 "새 회계연도(3월말 기준)를 앞두고 한동안 잠잠했던 설계사 스카우트전이 다시 과열되는 양상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재선임 정 태 석 광주은행장에 듣는다

"3년내 순익 2,000억 달성 지역 발전에 힘 보태겠다"

정태석 광주은행장(52)은 28일 "2010년 총자산 23조원, 당기순익 2천억원의 초우량 은행이 될 수 있도록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제10대 행장으로 재선임된 정 행장은 이날 은행 본점 회의실에 가진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조직인력 강화, 마케팅 효율화, 시장특화, 선진형 수익구조 수립, 지역밀착 강화 등 5대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 행장은 "지난 3년동안 서울 영업을 강화해 대출을 통해서만 순수하게 2조원의 자금을 지역으로 끌어와 중기대출 등에 사용했다"면서 "새 임기동안에는 지역내 시장점유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리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3년에서 5년 이내에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위한 외국자본의 인수합병 바람이 불 것"이라며 "이같은 금융환경 극복을 위해 철저한 사회 트렌드를 분석해 성과주의제도나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경영방향을 수립, 광주은행만의 독특한 기업문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전략을 토대로 확고한 경쟁력을 갖춘다면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광주은행은 2010년 목표달성을 계기로 2011년에는 총자산 30조원, 세전이익 3천억원대의 탄탄한 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시중에 나돌고 있는 전북은행 인수설과 관련, "지난해 말 한때 인수를 검토한 적은 있지만 성장성이 낮고 전북은행 영업지역의 경제력이 작아 인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포기했다"고 인수 검토사실을 시인했다.

또 지역 상공인들의 광주은행 인수추진 등 민영화 문제는 "우리은행과 함께 매각할 지 광주은행을 분리해 매각할 지는 매각시한인 내년 3월이 돼야 알겠지만 광주은행이 지역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정 행장은 이와함께 "지역은행으로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은 기업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며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공헌팀을 신설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오닉스' 팔찌·귀고리 눈길

28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주얼리 매장에 등장한 '오닉스'를 이용한 팔찌·목걸이·귀고리가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검정 원석 보석의 일종인 오닉스 제품은 15~38만원선에 판매된다. 〈광주신세계제공〉

설계사 보험료 대납 못한다

금감원 설계사 권익보호 추진

앞으로 보험 설계사가 영업목표를 채우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보험에 들거나 다른 사람의 보험료를 대신 내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 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설계사들에게 영업목표 달성을 강요하는 바람에 설계사들이 자기계약을 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설계사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 계약과 보험료 대납을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험업법에 반영할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해 현재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보험 설계사 표준 위촉 계약서'를 보험업계와 함께 만들어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이 계약서에는 보험 모집 수수료와 부당한 위촉계약 해지 등과 같은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금지, 설계사의 의무 및 금지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연합뉴스

내달부터 자동차 보험금 신속 지급

분쟁조정기구 마련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간 구상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가 마련돼 운전자들이 보험금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간의 구상금 분쟁을 조정할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를 손보협회에 설치하는 방안이 이번주중 금감원 인가를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 구상금이란 사고가 났을 때 한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뒤 상대편 보험사에 차량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는 일종의 사후 정산금이다. /임동욱기자 tuim@

광주에도 '셀프 와인' 와인 애호가에 인기

최근 외식 업계에도 'DIY(Do It Yourself)'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직접 만든 셀프와인을 광주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됐다. 2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셀프와인 광주점'이 지난해 12월 동구 학동에 문을 연 이후 셀프와인강좌, 와인만들기행사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 내 와인 애호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셀프와인(www.selfwine.co.kr)은 국내 최대 수제와인 프랜차이즈로, 캐나다에서 시작된 '셀프와인 제조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곳에서는 고객들이 와인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세상에 단 하나뿐인 와인'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업소측의 설명이다. 문의 062-223-3852.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문건설협 광주시회 정총

성환건설 등 표창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차주열)는 28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박덕흠 중앙회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광주 서구청이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권익보호에 공헌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제일장식개발과 성환건설 등 협회발전 유공 회원사들이 광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차 회장은 "현재 광주시의회에서 추진중인 '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회원사들의 하도급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